

# ‘자의반 타의반’...갈 곳 없는 백신 미접종자

### 백신 못 맞는 임신부·기저질환자 부부끼리 외식도 어려워 정부, 백신 기피 이유 파악 등 융통성 있는 방역 대책 필요

직장인 A(31)씨는 며칠 전부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부랴부랴 회사 구내식당에 내려가 출근길에 구매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A씨는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어려워져 이 같은 방법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A씨는 알레르기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데다 앞서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아버지가 접종 후 고열 증세와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는 등 일주일간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음성확인서가 있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식당이 있는데다 괜히 눈치를 주는 직장동료들도 있어 혼자 밥을 먹기로 결정했다”며 “방역패스가 시행될 때도 눈치가 보였지만, 더욱 강화된 뒤에는 회사에서 외톨이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방역패스와 강화된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시민들이 고립되면서 탄력적인 방역대책과 미접종자들을 설득할 만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신부와 기저질환자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백신 접종이후 몸에 이상반응

이 생긴 이들과 같이, 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가 다양한데도 지금의 방역패스는 무조건적인 접종을 권유하는 정책이라는 게 백신 미접종자들의 주장이다.

또다른 직장인 B(36)씨는 사흘에 한 번 꼴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혼밥’, ‘혼커’ 이외에는 불가능한 탓에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인 48시간을 고려해 사흘 간격으로 PCR 검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B씨는 “그나마 PCR 음성확인서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청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건수는 지난 11~14일 9116건에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18일부터 21일까지 9826건으로 700건 넘게 늘었다. 검사자가 접종완료자인지 미접종자인지는 구분할 수 없지만, B씨와 같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PCR 검사 빈도는 잦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신부 C씨는 남편과 외식을 하기도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인터넷을 보니 미접종자는 무조건 출입을 금하는 식당들도 많고 식당 입구에 ‘백신미접종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곳을 볼 때마다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며 “괜히 감염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방역전문가들은 시민마다 백신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융통성 있는 방역대책과 백신의 신뢰를 높일 만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사회가 배척하게 만드는 방역대책보다는 그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부가 백신의 신뢰성을 증명할 만한 자료 등을 토대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내년 새학기 친환경 급식비 194억 투입

광주교육청이 내년 새학기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급식지원비 194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광주시와 2022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급식 식품비 예산을 유·초·중·특수학교 2.95%, 고등학교 5.9% 각각 인상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예산도 67% 인상했다. 2022년도 평균 식품비 단가는 초등학교 2687원, 중학교 3153원, 고등학교는 3163원에 이른다. 올해 광주 지역 평균 식품비 단가는 초등학교 2427원, 중학교 2917원, 고등학교는 2790원이었다.

시 교육청은 2010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20년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시 교육청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유전자 변형식품 없는 우수 식재료 사용을 강화,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병풍벽화 점등식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금당산 입구에서 풍암동의 마을이야기가 담긴 병풍벽화 점등식이 열렸다. <광주 서구청 제공>

## 드디어 5·18 왜곡 처벌한다

### 경찰, 위반 대상자 첫 검찰 송치

경찰이 '5·18 왜곡 처벌법' 위반 대상자를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인 유튜브를 포함한 11명을 검찰에 넘기고 1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북한군 침입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왜곡·편파·조롱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광주시가 2차례에 걸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물, 유튜브 영상,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편파한 게시물 등 26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5·18왜곡 처벌법에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22건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12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왜곡 처벌법상 학문·연구 목적이었는지 여부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들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 17~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며, 2차 수사 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 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종하며 5·18을 왜곡·편파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 내년부터 마리당 최대 36만원

광주시가 마리당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집안에서 생활하는 소형 반려견과 달리 동물등록에 소홀하기 쉬운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또 유실·유기동물이 됐을 때 들개 번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내년에는 첫 시범으로 140마리에 대해 마리당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부터 6세 미만의 반려견으로, 성견이 됐을 때 10kg 이상의 체중을 가진 진돗개 유사품종의 대형견이다.

각 자치구의 대상자 공모 기간에 마당에서 키우고 있다는 인증사진 등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유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된다.

비용은 20kg 이상 암컷 기준 40만원으로, 반려견 주인은 10%만 동물병원에 지불하고, 90%(최대 36만원)는 자치구가 동물병원에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일반 시민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동물등록에 소홀하기 쉬운 마당개가 대상”이라며 “유실·유기 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들개 번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단독주택·상가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 광주시 25일부터 확대 시행...다가구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대상인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상가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왔다.

광주시는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위한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고, 언론매체(TV·인터넷 등)를 통해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 상가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는 분리수거함, 무인회수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네마당 확대와 함께 원룸 등 다가구 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상가지역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투명봉투에 담아 문전배출하거나, 가까운 장소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있다면 분리수거함에 투입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